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생 바로알기

흐남 문화

법과 질서



김석주

과식을 피하는 식습관의 6하 원칙

우리는 지금 화려로운 환경에서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포식의 시대에 살고 있다. 모를지기 인간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먹물을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래서 적절한 것을 알맞게 골라 먹는 예법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탐욕의 본능 때문에 건강이 망가지게 된다.

물질적 풍요는 이처럼 음식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하여 그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와 영양 과잉의 불균형으로, 각종 난치성 현대병이 급증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정을 흔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식생활 문제는 개인의 기호나 습관 정도로 쉽게만 생각지 말고, 식생활 문화로서 국가적 연구과제로 국민의 이슈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식과 운동 부족으로 야기되는 습관적 성인병의 늪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도 위대한 대자연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하지만, 사람

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만들어져 있다 보니 자연과는 어긋나게 살아간다. 언제든 배가 고프고 때 맛있게 먹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데, 인간은 건강을 위해서만 먹으려고 하니 원칙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음식은 자연과 전통문화의 산물임이 틀림없는데, 가장 먼저 우리 곁을 떠난 것은 조상의 맛이 간직된 정성스런 발효 음식이고, 지금 우리 앞에는 자극과 중독의 조미료 맛만 너울대고 있으니 한심스럽게만 한다.

더불어 우리가 즐기는 건강보조식품은 영양분이 풍부하여 부족하여 아무리 먹어도 인체의 중요한 자연 치유력은 기대할 수 없다. 살찐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음식을 빨리, 짜게 먹고 절제하지 못하며 단 음식을 좋아하고 저녁을 많이 먹는 특성이 있다.

1일 1식이나 1일 2식을 권하는 사람, 아침을 먹지 않도록 권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음식은 많이 먹는 것보다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유행과 생선회보다는 섬유질이 많은 싱싱한 야채와 과일, 가공식품보다 발효음식을 많이 먹고, 물(1일 2L 이상) 마시는 일을 기본 삼아 다음

의 6하 원칙을 준수하여 탐과 노력으로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하자.

- * **식사는 언제(when) 해야 하는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외식이나 회식 모임까지도 삼가야 하며, 할 수만 있다면 일정한 시간에는 아침은 가볍게, 점심은 든든하게, 저녁은 더 가볍게 먹는다. (간식과 야식은 절대 금한다.)
- * **식사는 어디서(when) 하는 것이 좋은가?**
가능한 외식은 금하는 게 좋다. 자기 집 식탁에서 안전하게 자리 잡고 예절을 지키면서 식사를 한다. (식사 중 신문, 잡지, TV 시청 등은 금한다.)
- * **식사는 누구(who)와 할까?**
할 수만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외롭게 혼자 하는 식사는 맛도 없고 멋도 없으며 과식의 원인이 된다.)
- * **무엇(what)을 먹어야 하는가?**
자연 음식, 발효음식, 전통음식을 먹으면 좋다. 무엇을 먹더라도 된장과 김치를 같이 먹고, 채면 불구하고 김치 국물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

- * **어떻게(how) 먹을 것인가?**
식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하며, 식사 중에 물은 절대 먹지 말고, 국물을 적게 먹는 것이 좋다. 무엇을 먹느냐가 인생의 설계라면, 어떻게 먹느냐는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 **왜(why) 먹어야 하는가?**
밥이란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니 살기 위해 먹는 것이다. 그러니 살 수 있을 만큼만 정직하게 먹으면 된다. 건강은 결과이고, 먹는 것은 과정임을 명심하자.
- 삶의 법칙은 우리 생리학적 도덕이며, 인체 속에 들어있는 생리법칙이다.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병의 치료제도 몸 안에 있는 것이고, 현대 문명사회 공포의 적은 병균이 아니라 잘못된 생습관과 식습관의 탓이다. 치료의 개념도 바꿀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의 우둔함을 타하면서 무거운 것 내려놓고 반성하며 살자.

〈한국전통문화교육원 황원당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칼럼



이원재

미땅히 지켜야할 각자의 문

우리 모두는 문자기의 사무를 맡은 자들이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문자기의 권한을 주어 사무를 맡기면서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출현해 왔을 때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 사무에 충실해야 한다. 문

지기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회에 가면 정문에 수문장 문자기가 문을 지키고 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 위엄이 대단하다.

회사나 학교, 병원, 아파트, 크든 작든 간에 사람이 출입하는 곳에는 으레 문자기가 있다. 문자기의 사무는 출입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다. 출입에 허자가 없는 사람만 출입시키기 위해서이다.

군인은 국방의 문을 지키는 자들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적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항상 깨어 있는 문자기들이다. 만일에 저들이 졸거나 자고 있다면 국방이 어떻게 되겠는가? 작금에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군인정신이 약화되는 것만 같은 일들이 있어 국방의 문이 약간 허술하지 않을까 조금은 염려스럽기도 하다.

경찰은 치안을 담당한 문자기들이다. 저들이 잠을 자고 있다면 사회의 불안과 혼란, 무질서, 무법천지의 세상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어찌 백성이 불안하여 살겠는가? 최근 경찰의 늦은 출동으로 미리 대처할 수도 있었을 사건의 책임을 지고 경찰의 총수가 물러난 일이 있었다.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그 용기와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대통령은 정부의 문을 든든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준다. 각각 주어진 위치에서 맡을 일하되 탐의 충분한 대가가 보장되게 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살기 좋은 나라, 가 보고 싶은 나라, 투자하고 싶

은 나라로 문호를 개방하고 보장하여 꿈이 있는 민족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대기업 재벌가들은 경제의 문을 잘 지켜야 한다. 일한 만큼의 수고비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민족과 긍지와 남을 삼을 불살라 버릴 만큼 애착을 갖게 해야 한다. 근로자나 노동자는 눈가림으로 헤쳐서 안 된다. 맡은 일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불건을 아끼며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하여 유익을 취하여야 한다. 근로자 노동자는 나름대로 지켜야 할 문이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지켜야 할 문이 있다. 주인이 왔을 때 깨어 있어 발걸음 소리를 듣고도 주인인 줄 알고 문을 열어 주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 끝없는 골문을 지키는 자이다. 끝없는 골기퍼의 절대적인 자리다. 누구도 대신 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미땅히 지켜야 할 각자의 문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광주무등교회 목사〉

기고



김승평

원전 사고 피해, 무엇이 진실인가

지난해 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안전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사고 이후 일본의 모든 원전은 멈춰 있고 언제 재가동될지 의견만 분분할 뿐이다. 일본의 현실을 지켜 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은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고리 원전의 사고 은폐 및 납품 비리는 그 믿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또한, 4·11 총선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원자력 발전소 추가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한다고 했으며, 통합 진보당은 '탈핵 에너지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5월 22일 환경

운동연합이 일본 관서학원대학 박승준 교수의 '영광, 고리 핵 발전소 사고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는 믿음을 잃을 국민에게는 가히 충격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번 발표에 대해 영광, 고리 원전사고 피해 모의실험에 대한 선부론 평가를 하기 전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원전 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방재대책 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데에는 이해가 가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은 무엇인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기에 앞서 진실한 것보다는 편파적인 것에 휩쓸리기 쉬운 국민적 감성에 '불붙은 곳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시비는 가려져야 할 상황이다.

박승준 교수가 세오코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대한 문제점들은 첫째, 1975년도 미국에서 발표된 코드를 이용한 것으로서 1979년 미국의 쓰리마일 원전사고,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겪으면서 얻어진 경험을 통해 분석결과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1990년 개정된 코드가 발표되었고, 그 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라스칼 평가 방법 또는 미국 규제위원회 코드인 벨코어를 활용하여 분석하여야 했다.

둘째, 국내 원전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시와는 달리 수소폭발을 비롯한 모든 내외부 사고를 가상하고 여유도를 고려하여 견고한 격납건물이 설치되어 있는바, 사고시에도 국내 원전과 유사한 미국의 쓰리마일 원전 사고시 경험한 바와 같은 격납건물의 견고성을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매우 낮은 방사선량에 대해서도 인구수를 고려하여 집단선량 개념을 적용하여 만성영향을 고려한 것은 국제방사선보호위원회(ICRP) 선권고 등에서 제시한 집단선량개념 사용을 무시한 사례이다.

넷째, 방사능 물질이 바뀌어가는 쪽을 향해서 일정한 내각의 부채꼴 범위 내에서 고리 원전은 부산, 영광 원전은 서울과

광주로 확산하는 기상조건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영광원전에서 방출된 방사능이 200km를 이동하는 데 24시간 이상 동안 풍향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는 임의적인 판단 기준을 사용하였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체르노빌 수준의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 최소화 노력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한 수십만 명의 사망자와 수백조 원 피해는 원자력 연구자나 사업자에게 국내 원전에서 불가능한 시나리오임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우리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국민의 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지진, 홍수, 쓰나미 등 자연재해 및 인적 실수, 화재, 테러에 견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이웃 나라의 어려움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핵심에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핵상에 투명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안전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존경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을 차릴 때다.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은행 성심처리에 주말 잘못 송금한 돈 되돌려받아

은행장님 안녕하십니까?
울긋불긋 꽃들로 물씬 젖어있는 산과 들을 보면서, 지난 금요일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 은행장님께 글을 올립니다.
저는 수년간 광주은행 문화동지점을 거래하는 소비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7시 30분경 문화동지점 CD기에서 2회에 걸쳐 600만원과 270만원, 총 87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보니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워 광주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하니 분이 CD기에서 직접 이체한 것이기 때문에 콜센터에서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월요일에 은행에 가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휴일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지 없이 잠깐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지인의 도움으로 최북구 본부장님께, 이런 저의 사정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최북구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담당부장에 전화를 해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 너무나 감사하게 밤늦게 잘못된 금액 870만원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담당 부장님과 상담직원은 잘못 수령한 고객에게 밤늦게까지 수차례 전화실적을 하였고 합니다.
퇴근시간도 늦추고 밤 늦게까지 수고해주신 직원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 시각 밤 10시20분경이었는데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은행장님!

광주은행에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객의 일을 자기일 같이 생각하고 처리해주신 본부장님, 담당부장님과 상담직원이 있었기에 저는 휴일을 즐겁게 가족과 같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영원한 광주은행 고객일 것이며, 항상 광주은행을 믿고 응원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은행인 광주은행의 이런 행동들이 모여 지역민과 함께 영원히 발전하는 광주은행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매일 화이팅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광주시 두암동 유영례

시설

'오염 수돗물' 해 없다더니 시민 우롱하나

지난달 발생한 '수돗물 오염 사고 피해'가 사전 경보시스템 운영 미숙과 정수 기술자적 인원 부족 때문에 커진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신체·정신적 피해 보상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애초 "인체에 해가 없다"고 했던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셈이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사고 당일 용연정수장 침전지 수소이온농도(pH)를 알리는 경보기가 관례상 pH6에서 울려야 했으나 pH5.02에서 울리면서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pH 수치가 0.98이나 더 떨어진 뒤 경보가 울린 것이다. 수돗물 수소이온농도의 정상수치가 5.8~8.5pH인 만큼 pH6에서 울렸을 경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이런 연유로 피해가 커져 신체·정신적 피해보상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한 문제자 아닐 수 없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 피해보상 요구는 75건, 4295만원에 이른다.

복통과 발진·가려움 등 신체적 피해 호소가 대부분이다. 또 심리적 문제나 수족관 금붕어 폐사, 음식물 폐기, 세탁물 변색에 따른 보상 요구도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고액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생후 50일 된 영아를 수돗물로 목욕시켜 피부병이 발생했다며 2000만 원을 요구했는가 하면, 이식수술한 모발이 오염 수돗물에 손상됐다며 8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공급시간이 짧은데다 일시적이어서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고 발표했던 터라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가 수돗물 오염에 따른 역학조사를 벌여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이유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함은 상수도본부의 당연한 의무다. 유당 피해보상도 뒤따라야 한다. 시는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한 만큼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보상으로 수돗물 불신을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백일해 항생제 없어 2차 감염 걱정된다

최근 영암 삼호고에서 백일해가 집단 발생했지만 보건당국이 일부 학생들에게만 항생제를 처방해 2차 감염 우려는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백일해가 전염성이 강해도 보건당국이 치료제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영암군에서 백일해가 집단발병해 31일 현재까지 삼호고 128명, 삼호중 126명, 삼호사중 7명, 삼호고 교직원 1명 등 의심환자 262명에게 항생제인 '지스토크스'(Zithromax)를 5일분씩 처방했다고 한다.

그러나 보건당국이 전교생 279명 중 확진환자 36명, 의심환자 154명 등 대다수가 유증상을 보인 삼호고에 항생제를 처방받은 128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 항생제를 처방 받으라는 지침을 전달해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전남도 등에 전교생과 교

직원에게 항생제 처방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백일해는 기도 내 심한 염증과 기침을 유발하며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이르는 전염병으로, 청소년·성인에게 생명을 위협이 될 만큼 위험한 질환은 아니지만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더구나 지난 73년 이후 백일해가 사라지면서 대다수의 약국이 지스토크스를 갖추지 않아 일반인들이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일부 약국의 경우 30정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환자 1명당 6~10정의 처방을 감안하면 3~5명 분량에 불과하다. 학생들과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항생제를 조기에 확보하고 정확한 원인 파악을 통해 2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 영암 삼호 이외 지역을 비롯한 일선 시·군도 전염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만큼 예방 접종 등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96년 9월 24일 미국 워싱턴DC 포트 마이어 미 육군 장교클럽에서 주미한국대사관 무관부 주최로 '한국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리셉션이 한창인데 저녁 8시15분께 미연방수사국(FBI) 수사관 3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주미한국대사관 무관부 백동일 대령의 초청으로 파티에 참석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을 미국 국가기밀 누설혐의로 전격 체포한다.

로버트 김의 본명은 김채근(72). 여수가 고향으로, 8·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형 전 의원의 4남1녀 중 장남이자 현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의 큰형이다. 로버트 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1978년부터 1991년 미 해군정보국 컴퓨터 분석관으로 일하다 간첩혐의로 기소돼 9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1995년 11월 28일 하와이에서 처음 만났던 김씨에게 백색의 침보수집 한계를 토로하면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김씨는 고국에 대한 사랑에 기꺼이 응했다. 이후 50여건의 정보를 제공했는데, 주로 북한군의 동

향과 휴전선 배치 실태 등 한국 정부에겐 유용한 정보지만 국가기밀이라고 할 정도의 극비 정보는 아니었다.

김씨의 체포 배경에는 그가 미국이 한국군에 수출하려던 해상지위통제 장비에 대해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느냐며 재고할 것을 조언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부는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오히려 여수시민들을 중심으로 석방 및 구명 운동을 벌였고, 한화 김승연 회장 등이 꾸준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민선 차원의 도움이 컸다.

김씨가 4년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어머니 기항 일기 4월에 맞춰 고향 컴퓨터 분석관으로 일하다 간첩혐의로 기소돼 9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1995년 11월 28일 하와이에서 처음 만났던 김씨에게 백색의 침보수집 한계를 토로하면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김씨는 고국에 대한 사랑에 기꺼이 응했다. 이후 50여건의 정보를 제공했는데, 주로 북한군의 동

향과 휴전선 배치 실태 등 한국 정부에겐 유용한 정보지만 국가기밀이라고 할 정도의 극비 정보는 아니었다.

김씨의 체포 배경에는 그가 미국이 한국군에 수출하려던 해상지위통제 장비에 대해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느냐며 재고할 것을 조언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부는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오히려 여수시민들을 중심으로 석방 및 구명 운동을 벌였고, 한화 김승연 회장 등이 꾸준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민선 차원의 도움이 컸다.

김씨가 4년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어머니 기항 일기 4월에 맞춰 고향 컴퓨터 분석관으로 일하다 간첩혐의로 기소돼 9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1995년 11월 28일 하와이에서 처음 만났던 김씨에게 백색의 침보수집 한계를 토로하면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김씨는 고국에 대한 사랑에 기꺼이 응했다. 이후 50여건의 정보를 제공했는데, 주로 북한군의 동

향과 휴전선 배치 실태 등 한국 정부에겐 유용한 정보지만 국가기밀이라고 할 정도의 극비 정보는 아니었다.

김씨의 체포 배경에는 그가 미국이 한국군에 수출하려던 해상지위통제 장비에 대해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느냐며 재고할 것을 조언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부는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오히려 여수시민들을 중심으로 석방 및 구명 운동을 벌였고, 한화 김승연 회장 등이 꾸준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민선 차원의 도움이 컸다.

김씨가 4년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어머니 기항 일기 4월에 맞춰 고향 컴퓨터 분석관으로 일하다 간첩혐의로 기소돼 9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1995년 11월 28일 하와이에서 처음 만났던 김씨에게 백색의 침보수집 한계를 토로하면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김씨는 고국에 대한 사랑에 기꺼이 응했다. 이후 50여건의 정보를 제공했는데, 주로 북한군의 동

로버트 김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